

지금, 영국은?

런던, 초저배출구역 기존 구역보다 18배 확장

유해 배기가스 배출 노후 차량에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런던시의 초저배출구역 (The Ultra Low Emission Zone, ULEZ)이 기존에는 도시 중심부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나, 2021년 10월 25일부터는 북쪽 및 남쪽 순환도로까지 확장되었다. 새롭게 확장된 구역은 기존 런던 중심부 위주로 운영하던 구역보다 18배나 크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만 무려 380만 명이다 ... <LocalGov, 10.25>

[MORE >](#)



영국 최신동향

- 런던, 초저배출구역 기존 구역보다 18배 확장
- 런던시 모든 자치구, 2030년까지 가정 주택 개보수 계획에 동의
- 해링게이 지자체, 노숙인 문제 해결 위해 모듈러 주택을 제공하는 첫 런던 자치구가 되다
- 주택커뮤니티 부처 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 53개 지자체에 전달

[MORE >](#)



광역 맨체스터, 영국 최초 탄소중립 교통 네트워크 계획 수립 <GMCA, 11.8>



퀸즐랜드주, 2022년 유학생 환경 계획 발표 <7News.com.au (10.26)>

호주 최신동향

- 3개 주 정부, Net Zero 달성에 공동 협력
- 퀸즐랜드주의 오지 마을에서 토지 무료제공 관심 폭발
- 타즈메니아주, 7분기 연속 지역경제 평가 1위
- 남호주주, 전기차에 거리 기반 세금 도입

[MORE >](#)

미국 최신동향

- LA시, 소상공인에 "캠백 지원금" 지급
- 뉴욕시, 재향군인 고용 플랫폼 발표
- 시애틀시, 911 콜센터 직원 대상 고용보너스 지급으로 지원자 10배 증가
- 뉴욕주, 퇴거 위기 저소득 세입자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MORE >](#)



시애틀시,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 <Seattle Medium, (11.3)>



정부, <오염 방지·퇴치전쟁 심화 추진 의견> 발표 <신화망, (11.7)>

중국 최신동향

- 베이징 동계올림픽 "방역매뉴얼" 발표
- 시진핑 주석, 제4회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
- 31개 성 1~3분기 GDP 발표
- 사교육 광고 엄격 단속, 지방정부에 특별점검 지시

[MORE >](#)

일본 최신동향

- 홋카이도, 적조수 피해「100억엔 기부」요청, 고향납세로 지원 확대
- 고향납세 반례품으로, 친척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발주 지시, 뇌물 수령
- 마이넘버카드로 백신 접종증명서 신청 개시, 디지털청의 의도는?
- 「도쿄도 지사」월 급여 부지사보다 낮아

[MORE >](#)



확진자 감소로 관광지 정체 현상 교통 정체 심화, 대책은? <TV아사히, (11.6)>



파리 2021-2026 벨로 플랜 발표, 2억5천만 유로 투자 <Libération, (10.21)>

프랑스·독일 최신동향

- 함부르크, 제27회 ITS 월드 콩그레스 성황리 개최
- 베를린, 유럽 최초의 테슬라 공장 대중 공개
- 라이프치히, 독일 최고의 여행지에 선정
- 원자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미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 ZFE(배기가스 배출 억제지구), 뮌헨도 채택한다

[MORE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영국 최신동향 >>



광역 맨체스터, 영국 최초 탄소 중립 교통 네트워크 계획 수립

광역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MCA)가 영국 최초로 탄소 중립 교통 네트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해당 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지역 버스의 50%가 전기버스로 대체될 예정이며, 10년 이내에는 100% 전기버스로 전환될 예정인데, GMCA 측은 이를 통해 11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

〈GMCA, (11.8)〉 [MORE >](#)



런던, 초저배출구역 기존 구역보다 18배 확장

유해 배기가스 배출 노후 차량에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런던시의 초저배출구역(The Ultra Low Emmission Zon, ULEZ)이 기존에는 도시 중심부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나, 2021년 10월 25일부터 북쪽 및 남쪽 순환도로까지 확장되었다. 새롭게 확장된 구역은 기존 런던 중심부 위주로 운영하던 구역보다 18배나 크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만 380만 명이다 ...

〈LocalGov, (10.25)〉 [MORE >](#)



런던시 모든 자치구, 2030년까지 가정 주택 개보수 계획에 동의

런던시 모든 자치구가 2030년까지 도시 내 모든 가정집의 에너지 효율(EPC) 등급이 B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계획에 동의하였다. 해당 계획은 30여만 채 사회주택들의 개조 필요성을 포함하며, 허가 결정 및 지침이 저탄소 개보수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런던시의 가스 난방 시스템에서 전기 난방 시스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들을 설정한다 ...

〈Housing today, (10.18)〉 [MORE >](#)



해링게이 지자체, 노숙인 문제 해결 위해 모듈러 주택을 제공하는 첫 런던 자치구가 되다

해링게이 지자체(Haringey Council)는 Hill Group 개발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히 제작된 33개의 모듈러 주택을 제공하는 첫 런던 자치구가 되었다 ...

〈Local Gov, (10.14)〉 [MORE >](#)



주택커뮤니티 부처 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 53개 지자체에 전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커뮤니티 부처의 'Brownfield Land Release' 기금(약 5,800만 파운드 규모)이 잉글랜드 지역 53개 지자체에 전달되었다 ...

〈GOV.UK, (10.12)〉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호주 최신동향 >>



3개 주 정부, Net Zero 달성에 공동 협력

NSW주와 남호주주, 수도준주는 온실가스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기구로 'Net Zero 배출 정책 포럼'을 창설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정부의 구체적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글래스고 COP26 이후 주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발표되었다 ...

〈The Guardian, (11.8)〉 [MORE >](#)



퀸즐랜드주의 오지 마을에서 토지 무료제공 관심 폭발

퀸즐랜드주의 오지 마을인 Quilpie에서는 농촌 주택 위기 해결책으로 12,500달러 상당의 토지 블록을 무료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인 정착 보조금은 홍콩과 인도 등 해외를 포함해 250건 이상의 문의를 받는 등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

〈The Guardian, (10.22)〉 [MORE >](#)



타즈메니아주, 7분기 연속 지역경제 평가 1위

금융전문기관 CommSec의 보고서에 따르면 타즈메니아주가 8개 주요 지표 지역경제 평가에서 7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수도 준주, 3위는 서호주주와 NSW주, 5위는 남호주주와 빅토리아주, 7위와 8위는 각각 퀸즐랜드주와 북부 준주이다 ...

〈9News.com.au, (10.25)〉 [MORE >](#)



퀸즐랜드주, 2022년 유학생 환영 계획 발표

퀸즐랜드주는 내년 첫 학기에 맞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국경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주 보건시스템을 잠재적으로 백업하기 위해 의학과 보건 분야 유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

〈7News.com.au, (10.26)〉 [MORE >](#)



남호주주, 전기차에 거리 기반 세금 도입

남호주주에서는 빅토리아주와 NSW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전기차에 거리 기반 세금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1Km당 2.5센트의 새로운 세금은 2027년 7월 또는 전기차가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날 중 빠른 날짜에 발효될 예정이다 ...

〈ABC News, (10.28)〉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미국 최신동향 >>



LA시, 소상공인에 “컴백 지원금” 지급

LA시는 COVID-19의 타격을 입은 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각각 \$5,000을 지원하는 “컴백 지원금 (Comeback checks)”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원자 중 추첨 방식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이면 분야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 ...

〈KTLA 5, (10.26)〉 [MORE >](#)



뉴욕시, 재향군인 고용 플랫폼 발표

뉴욕시는 시내 공공 또는 민간 업체와 재향군인을 연결하는 미국 최초의 재향군인 고용 플랫폼 (VetConnetPro)을 발표했다. 재향군인이 가진 기술을 새로운 일자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시 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의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에게 맞는 직업교육을 추천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뉴욕시 공식홈페이지, (11.11)〉 [MORE >](#)



시애틀시, 911 콜센터 직원 대상 고용보너스 지급으로 지원자 10배 증가

시애틀시는 911 콜센터 직원들을 공공 안전 대응을 위한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10월 29일 신입 경찰 및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 30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너스 지급 시작 후 5일 동안 지원자가 10배 증가하였다 ...

〈시애틀시 공식홈페이지, (11.5)〉 [MORE >](#)



시애틀시,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

시애틀시는 킹카운티의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최대 2,000개의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극장, 예술 관련 업체, 볼링장, 헬스장과 같이 킹카운티 규정에 의해 고객의 백신 접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

〈Seattle Medium, (11.3)〉 [MORE >](#)



뉴욕주, 퇴거 위기 저소득 세입자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뉴욕주는 2천5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세입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지 못하며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STL News, (11.12)〉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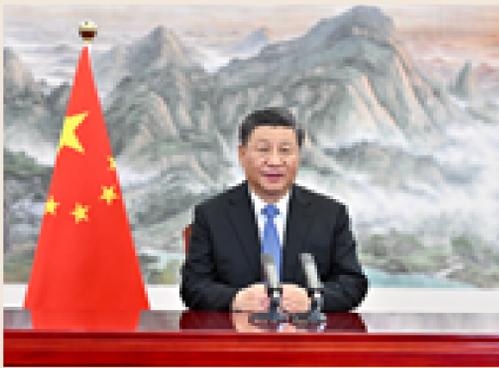
중국 최신동향 >>



베이징 동계올림픽 “방역메뉴얼” 발표

조직위는 대회 간소화를 원칙으로 삼아 매뉴얼 상 불필요한 활동 및 단계는 최대한 생략하고 인원 규모를 축소하며, 입국하는 모든 인원은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 접종 전 과정을 마쳐야 집중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인민망, (10.25)〉 [MORE >](#)



시진핑 주석, 제4회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

시진핑 국가주석이 11월 4일 제4회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개막식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개방의 봄바람으로 세계를 따뜻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 후, 제 3회 수입 박람회 시 선언했던 개방 확대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중국망, (11.6)〉 [MORE >](#)



정부, 〈오염 방지·퇴치전쟁 심화 추진 의견〉 발표

정부는 2025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지급시(地級市) 이상 도시 PM2.5 농도 10% 감축, △대기질 우수 일수 비중 87.5% 달성, △지표수 Ⅰ~Ⅲ등급 비중 85% 달성 등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감축하고 생태계 질을 제고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화망, (11.7)〉 [MORE >](#)



31개 성 1~3분기 GDP 발표

1~3분기 GDP는 823,131억 위안, 전년동기 대비 9.8% 성장하였다. GDP 상위 10개 성은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스촨, 푸지엔, 후베이, 호난, 안후이였다 ...

〈인민망, (11.2)〉 [MORE >](#)



사교육 광고 엄격 단속, 지방정부에 특별점검 지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선전부, 교육부 등 9개 중앙기관 명의로 통지문 발표, 사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광고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지하철, 버스에서의 사교육 광고도 금지한다 ...

〈중국신문망, (11.9)〉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일본 최신동향 >>



홋카이도, 적조수 피해「100억 엔 기부」요청, 고향납세로 지원 확대

홋카이도 적조로 인한 어업 피해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홋카이도청은 국가에 기금창설을 요청, 연안 기초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이용한 지원금 접수를 개시했다. 10월 29일 기준 피해액은 약 80억 엔이다 ...

〈시사통신, (11.7)〉 [MORE >](#)



고향납세 반례품으로, 친척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발주 지시, 뇌물 수령

고치현 나하리쵸의 고향납세 뇌물사건으로 지방창생과 前과장보좌(뇌물죄로 공판중)의 부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197만 엔을 구형했다 ...

〈요미우리신문, (10.27)〉 [MORE >](#)



마이넘버카드로 백신 접종증명서 신청 개시, 디지털청의 의도는?

현재 접종증명서 발행은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 접종증명서 발행은 마이넘버카드가 필수가 되었다. 마이넘버카드가 교부된 지 5년 이상 지났지만 교부율이 아직 38.4%라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디지털청 실적 만들기라는 지적도 있다 ...

〈데일리 신초, (11.6)〉 [MORE >](#)



「도쿄도 지사」월 급여 부지사보다 낮아

총무성 발간『지방공무원급여실태조사』에 따르면, 47 도도부현 지사 중 가장 월 급여가 높은 곳은 가나가와현 145만 엔, 이어서 사이타마현 142만 엔이다. 제일 낮은 곳은 도쿄도 72만8천 엔으로, 이것은 지사급여 반감 조례 때문이다 ...

〈겐토샤 온라인, (11.2)〉 [MORE >](#)



확진자 감소로 관광지 정체 현상 교통 정체 심화, 대책은?

확진자 수 감소로 관광객이 돌아왔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지 하코네에서는 교통 정체가 심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11월 주말은 자가용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관광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

〈TV아사히, (11.6)〉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

프랑스 · 독일 최신동향 >>



함부르크, 제27회 ITS 월드 콩그레스 성황리 개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관한 정보 교환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 제27회 ITS World Congress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400개의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13,000명이 방문하였다 ...

〈Hamburgnews, (10.18)〉 [MORE >](#)



베를린, 유럽 최초의 테슬라 공장 대중 공개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의 독일 공장 설립에 대한 발표 이후, 약 2년 만에 완공된 유럽 최초의 테슬라 공장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해당 공장은 베를린 근교의 작은 도시인 Grunheide에 위치하며 향후 약 12,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연 50만 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

〈Berlin.de, (10.9)〉 [MORE >](#)



라이프치히, 독일 최고의 여행지에 선정

여행 매거진 론니 플래닛(Lonely Planet)은 새로 발간된 “독일의 궁극적인 여행 목적지 상위 250개 목록”에서 라이프치히를 독일 최고의 목적지로 선정하였다. 저자는 이 도시를 “베를린보다 멋지고 뮌헨보다 유행에 앞서며 특히 밀레니엄 세대에겐 인기가 많다”고 소개하였다 ...

〈mdr.de, (10.12)〉 [MORE >](#)



원자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미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50년 에너지 공급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과정을 거쳐 전기공급공사(RTE)는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병행하여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향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

〈Le Figaro, (10.25)〉 [MORE >](#)



ZFE(배기가스 배출 억제지구), 뚠루즈도 채택한다

파리, 리옹, 스트라스부르 등 도심에 교통량이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ZFE(Zone à faibles émissions, 배기가스 배출 억제지구) 지정 제도가 뚠루즈에도 도입되는 등, 33개 도시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ZFE에서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낡은 화석연료 차량은 통행할 수 없게 된다 ...

〈La DEPECHE, (10.21)〉 [MORE >](#)



파리 2021-2026 벨로 플랜 발표, 2억5천만 유로 투자

파리시는 시내 자전거도로 대규모 확장, 10만 대 자전거 안심 주차장, 최도심 차량 통행 제한 등 자전거 통행 편의를 위한 각종 계획을 모아 향후 5년간 추진할 벨로 플랜을 발표하였다. 지난 5년간 1차 플랜 시행에 1억 5천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이번 2차 플랜에는 2억 5천만 유로 예산을 책정하여 자전거 이용 100% 가능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

〈Libération, (10.21)〉 [MORE >](#)

국가별
최신동향
바로가기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 (서소문동, 동화빌딩)
Tel. 02-2170-6015 | Fax. 02-2170-6081, 6082
문의 : 국제협력부(02-2170-6041)